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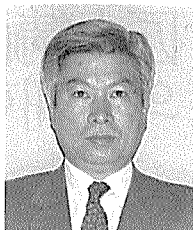
# 大學의 情報化 사회 진입

우리들 생활의 주변에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린다. PC를 차에 싣고 다니거나 노트북형의 PC 판매광고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거나 SW 전시판매장이 용산전자상가에 등장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한 것들이 그 예이다. 대학가에도 구내 컴퓨터 SHOP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디스켓 판매단위가 BOX에서 낱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으며 워드프로세서(Wod Processor)를 사용하여 과제를 처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등 대학생활에서 PC는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컴퓨터'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또 졸업후에는入社후 곧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학생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 정보화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는 예언을 앨빈 토플러박사는 이미 수년전에 했지만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러 곳에서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나는 80년대를 '세운상가' 컴퓨터시대라고 한다면 90년대를 '용산전자상가' 컴퓨터 시대라고 평하고 싶다. 그 이유는 내가 속해 있는 대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8비트16비트 PC로부터 자체기술력에 의한 16, 32비트형의 컴퓨터로 발전해 나가는 현

金吉助  
중앙대학교 교수



상을 용산상가에서 눈으로 피부로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즉 정보화사회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 현상때문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은 누구나 1학년 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대학자체의 PC나 터미널 시설만해도 학생 30명당 1대꼴인 6백50여대에 이르러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대학이 정보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 않겠는가. 또 내 연구실에도 PC를 통한 Mailing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학교의 정보화사회 진입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대학내 LAN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창밖을 내다보면서 대학의 정보화사회 진입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